

# “초등교원 임용대기 시효 한시 연장을”

### 김승환 교육감, ‘임용절벽’ 해결책 제시… “당장 떨어진 불 끌 최선책… 원칙적으로는 시효 폐지가 마땅”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학교 선발 인원이 급감해 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초등교원 임용대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3년까지인 임용대기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조는 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

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안됐다면 합격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100%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교원수를 줄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이 맞으려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규모였다는 게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역대 정권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계속 내려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교원수급 예

측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초등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필요한 교원수에 일정 예비율을 적용해 추가 선발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도 100% 임용시험 합격자로 채용해왔는데 교육의 질은 크게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교원 적정수를 약간씩 넘어서게 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시 적정선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후년까지는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해은 기자

## 文대통령, 공관병 갑질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모든 부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군 문화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소환된 박진주 대장 부부를 압시하듯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갑질 문화는)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차체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 적폐를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며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확장 역할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샷不漏는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민주당, 내주 정당발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다음 주 중으로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발전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최재성 전 의원이 맡는다.

발전위는 당 발전을 위한 지지층 확보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고위에 제안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발전위 구성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적폐청산을 맡을 적폐청산위원회도 내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지명됐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논의하기로는 지방선거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위) 구성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 구성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전위 명칭에 대해 “혁신위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발전위는) 당 발전과 관련된 제안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 권한에 대해서는 “제안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당 체질 변화를 위한 제안, 100만 당원 확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당헌당규 보완에 관련된 내용을 (최고위)에 제안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위가 집행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집행은 최고위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위 혁신안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 등 절차를 밟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김상곤 혁신안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분권정신 같은 시도당 역할이 강화됐는데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약간 미세조정하는 의제들을 모아 검토하고 최고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손잡은 한미일 외교장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가운데)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왼쪽), 고 노도 일본 외무상이 7일 오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북 외교장관 조우… 北 “南 제안, 진정성 결여”

### 강 장관 “베를린 구상 조속한 호응 기대” 발언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남북 외교장관이 지난 6일 의장국이 주최한 만찬을 계기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갈리만찬 대기실에서 북한 리우호 외무상과 만

나 악수를 한 다음 대화를 나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정부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 대북 제안에 북측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리 외무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

측이 미국과 공조 하에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강 장관은 재차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으나, 북측의 추가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文 대통령, 트럼프에 핵잠수함 추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군의 자체 방어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미사일 탄도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핵잠수함)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체 방어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의 탄도중량 확대 문제와 핵잠수함 추진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도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공론화에 불씨를 지켰다.

/뉴시스

#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를 행복의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